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이념

우리 대학의 이념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들과 생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자상 명령에 따라 한반도의 구석 구석까지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 정신이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그 밀바탕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날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 복음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세계가 지구촌화하는 현실 속에서 다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이다.

설립모집

우리 대학은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 복음전도자는 "한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화생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지
내려온 만우 열매를 맺는 모아보기사

四

본교의 교표는 기본적으로 배의
가운데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죽으심을 상징하여 십자가 위
코코스라고 있으며 의미는 곡식
12장 24절 '한일의 일일'에 서
가르침을 국명하게 드러내는 단어

22

본교의 교가는 설립자이신 고종대군 박사

1절

2월

3월 **▲** **▲** **▲** **▲** **▲**



'스룹바벨상', '웰던상'

제 65 회 학위수여식에서 영광스런 '스룹바벨상'(4년간 BRC 수업에 헌신을 다한 자)과 '웰던상'(4년간 채플 100% 참석)을 수상하게 될 주인공들이 밀알관 2층 학교 역사실에 함께 모였다. 왼쪽부터 이정혁(스룹바벨상), 김지현, 최준혁(웰던상) 학우. (관련기사 3면)

코코스는 '하늘의 밀'을 의

www.bible.ac.kr

발행인 강우정

편집주간 이강동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02-950-5401

여성 목사 안수 허용

한국성서선교회

50년 전통 깨뜨려

한반도복음화 전략에도
긍정적 변화 기대



▲ 현희철 이사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앙성서교회서 개최된 제46차 한국성서선교회(이사장 현희철 목사) 대의원총회는 여성의 목사 시취(試取)를 허용하는 현장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통과에 따라 우리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원우들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69년 한국성서선교회 발족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이다. 현장 개정안 통과는 우리대학 설립자 강태국 박사의 비전인 한반도복음화 전략에도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현장 개정안은 현장 제37조(시취자격) 목사 시취는 다음 각항을 구비한 자로 한다. 제1항(인적사항) 만 27세 이상인 남자를 제1항(인적사항) 만 27세 이상인 자로 하여 '남'자를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동성애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부칙을 추가하여 시행일을 2020년 1월 21일로 함으로서 올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여성 원우들도 4월 21일 치러질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시취(試取)란 한자로 시험할 시(試), 취할 취(取)인데 목사를 안수하기 전에 후보자의 구원의 확신, 성서적 신앙에 대한 확인, 목사로서의 자질, 소명에 대한 확신, 신학적인 체계의 검증 등을 선정된 위원들(주로 목사로 구성)이 모여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희철 이사장은 그동안 여성 목회자 안수 여부에 대해 이사진 및 임원들과 수년간 기도하며 논의해 왔고 한국성서대학교 신대원과 함께 워크숍, 세미나로 신학적 찬반 이론도 끊임없이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김은호 부총장은 질의답변을 통해, "여성 목회자 허용여부는 보수성향이 강한 우리 공동체의 체질상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도 헌신적이면서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십의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공동체의 성서적 보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신앙적 성숙함을 잘 반영한 역사적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원 원우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여성 원우들은 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한 원우는 "일립 강태국 박사의 이념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신대원에 왔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가 살아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성안수 반대'에 집착해 있을까 고민해 왔다. 이제 고인 물이 뻥 뚫린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미니설교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벧전 4:7-11)

최영태 교수(성서학과)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합니다(7).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그리 스도의 재림의 때로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벧후 3장 등).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가 1세기 후반이라면,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세상이 더 어지럽고,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벧후 3장; 딤후 3장 등).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벧후 3:11-13; 롬 13:11-14).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때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마 26:41; 롬 12:1-2 등).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고전 13장 등). 셋째,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것은 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라(10-11).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11).

제 65 회 학위수여식 취소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박사 3 명, 석사 60 명, 학사 226 명



▲ 강하늘 (전체 성적최우수상)

성서대 최고의 영예 신앙의 3 대 대상

에스라상 – 선우찬영
웰던상 – 최준혁, 김지현
스룹바벨상 – 이정혁



▲ 선우찬영 (에스라상)



▲ 최준혁, 김지현 (웰던상)



▲ 이정혁 (스룹바벨상)

오는 2 월 18 일 갖기로 예정된 제 65 회 학위수여식 (대학원 32 회) 이 전면 취소되었다 . 교무위원회는 7 일 회의를 갖고 오랜 토의 끝에 이같이 결정하였다 . 졸업생들에 대한 학위기 , 수상자들의 상장 및 상품 전달 등의 절차는 따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이번 졸업에는 학부 226 명 (성서 49, 사복 62, 영보 47, 컴소 16, 간호 52) 이 학사학위를 받는다 . 대학원은 박사 3 명 , 신학석사 3 명 , 간호학석사 5 명 , 목회학석사 27 명 , 사회복지학석사 9 명 , 보육학석사 16 명이 학위를 받는다 .

영예의 총장상 (전체성적최우수자) 은 강하늘 (사복) 학우가 받는다 . 강하늘 학우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미래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신양인의 모습을 잊지 않겠다 ” 고 다짐하였다 .

한국성서대학 교육의 중심축 (中心軸) 은 신앙교육과 훈련이다 . 기본적인 신앙훈련은 성경 , 기도 , 전도 , 봉사가 있으며 예배는 생활이다 . 학우들은 4 년 동안 이 같은 훈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담금질 된다 . 이 훈련은 결단과 충성이 요구되며 끈질김 , 인내를 통해 연단되고 , 연단 끝에 소망을 이루는 (롬 5:4) 교육의 과정이다 . 이 과정에서 가장 탁월한 일꾼들에게 3 가지 큰상을 준다 . 에스라상 , 웰던상 , 스룹바벨상이 그것이다 .

▲ 에스라상

한국성서대학생은 이론적으로 1 년에 성경을 1 회 통독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실제 상담 결과를 보면 재학 중 성경 1 회 통독한 학우는 약 33% 이고 4 회는 7% 에 불과하다 . 올해 졸업생 중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학우는 12 회 통독한 선우찬영 학우다 . 그에게는 에스라상을 수여한다 .

▲ 웰던상

매일 예배는 성서대 모든 학우들이 4 년 동안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이다 . 학교는 학우들의 출석일을 고려하여 대략 75% 를 출석하면 합격점을 준다 . 그러나 학교의 배려 (?) 를 거부하고 4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학우가 있다 . 그에게 학교는 감격하여 “잘 하였도다 ! 칙하고 충성된 종아 ! ” 라는 주인의 칭찬을 빌려 웰던 (Well Done) 상을 준다 . 올해 이 상은 최준혁 , 김지현 학우가 받는다 . 두 명의 학우는 4 년 동안 608 회 예배에 참여하였다 .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

▲ 스룹바벨상

스룹바벨상은 4 년 동안 성서학과 1 학년 학우들의 BRC(Bible Reading Class, 월 – 금 0 교시) 를 도운 도우미에게 주는 상이다 . 스룹바벨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거의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의 힘을 결집하여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으로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이다 . 스룹바벨과 같이 BRC 도우미들은 입시 전쟁터에서 막 돌아와 기진맥진한 1 학년 학우들을 부추겨 잠을 깨워가며 성경을 읽게 한 사역자들이다 . 학기마다 13~14 명의 선배들이 도우미가 되어 1 학년 새내기들을 돋고 섬긴다 . 이 일을 4 년 내내 수행한 학우가 있다 . 올해 이 상을 이정혁 학우가 받는다 .

부총장 강규성 대학원장 김은호 교수 임명



▲ 강규성
부총장



▲ 김은호
대학원장



▲ 김정원
교학처장



▲ 이민규
신양훈련과장



▲ 김승호
성서적세계관 교육과장

강우정 총장은 오는 3월 1일 자로 부총장에 강규성 교수, 대학원장에 김은호 교수를, 전공교육부 교학처장에 김정원(신학) 교수를 각각 임명하였다. 일립교육부 신양훈련과장에는 이민규 교수, 성서적세계관 교육과장에 김승호 교수를 임명했다.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확실

7년 연속 전원 합격, 전원 취업도



▲ 이른 아침부터 성동공고에 모여서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준비중인 후배들

우리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52명이 지난 22일 치러진 제60회 간호사국가고시에 전원 합격이 확실시 된다. 7년 연속 100% 합격의 전통을 올해도 세워갈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 학우들은 이날 시험을 치른 후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채점한 결과 모두 합격권내에 들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합격권 내에 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원 측에서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시험지를 가지고 나가도록 용인했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표기한 정답을 가지고 나와 교수들과 정답을 크로스 체크하며 점수를 최종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8 과목 295 문제가 출제되며 전 과목 60%, 매 과목 4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월 14일이다.

현재 우리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일원의 유수 대학 및 대형종합병원, 국공립 등 보건 의료기관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 있다.

이번 간호사 국가고시는 학우 전원이 성동공업고등학교를 시험장소로 선택해 함께 치렀다. 이른 아침부터 고미숙 학과장, 장인순, 이소정, 이은주, 김주아 교수와 이진영 학회장 등 10명의 후배들까지도 시험장에 나와서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도하며 응원하였다.

사회복지사자격 1급 시험 2월 8일

특강, 모의테스트 거치고
마지막 담금질 중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자 52명은 2월 8일 치러질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에 매진중이다.

김성호 학과장과 전공 교수진들은 이번 겨울방학기간 동안 제자들의 합격을 위해 동계 특강과 모의테스트를 운영하며 사랑을 전했다. 방학 첫 주간인 12월 17~20일까지 1급 국가시험대비 동계 특강을 가졌으며 27일과 1월 6일에는 1급 시험과 유사한 모의테스트로 실전과 합격선을 사전 기능토록 안내하였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8개 영역에 200 문제가 출제되며 매 과목 40%, 전체 60% 이상이면 합격권이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3월 11일, 서류제출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4월 8일 확정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대학 사복 학우들의 1급 시험은 전국 평균보다 2~3 배 이상의 합격선을 보여줬다. 참고로 지난해 졸업한 학우들의 1급 시험 합격률은 83.3%로 이는 전국 평균 34.5% 와 비교해 2.4 배를 넘어선 결과이다.

2020 학년도 1 학기 장학대상자 발표

성적장학 및 교내외 248 명에
3 억 4 천만 원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김명은

장학사정위원회가 지난 23 일 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년도 1 학기 장학대상자를 선정 발표하였다. 사정위원회는 전체 최우수와 우수 등 내 · 외부 대상자 총 248 명에게 총 3 억 4 천만 원의 장학금 (국가 장학금 제외) 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에는 김명은 (성서 3) 학우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김 학우는 지난해 2 학기 전체 최우수에 이어서 2 회 연속 전체 최우수성적장학의 기록을 남긴 주인공이 됐다. 학과별 최우수성적장학은 정연수 (성서 3) 학우 등 15 명이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윤성민 (사복 3) 학우 등 29 명이 우수성적장학으로 기쁨을 맛보았다.

신입생 성적장학대상자는 등록을 마친 후 성적에 따라 별도로 발표된다.

교내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최우수성적장학 ▲ 김명은 (성서 3)

◆ 최우수성적장학

- ◊ 성서학과 ▲ 정연수 (3) ▲ 곽지안 (2) ▲ 김소의 (1)
- ◊ 사회복지학과 ▲ 조민정 (3) ▲ 유희창 (2) ▲ 김미림 (1)
- ◊ 영유아보육학과 ▲ 김소혜 (3) ▲ 문혜림 (2) ▲ 안소희 (1)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김모세 (3) ▲ 남현수 (2) ▲ 박범찬 (1)
- ◊ 간호학과 ▲ 김정연 (3) ▲ 이진영 (2) ▲ 이윤아 (1)
- ◆ 성적장학우수 (2 등 / 3 등)
 - ◊ 성서학과 ▲ 김채현 (3) ▲ 김광명 (3) ▲ 곽선희 (2) ▲ 정현미 (2) ▲ 박성현 (1)
▲ 강은혜 (1)
 - ◊ 사회복지학과 ▲ 유은총 (3) ▲ 윤성민 (3) ▲ 고영욱 (2) ▲ 이형진 (2) ▲ 강해민 (1)
▲ 윤지민 (1)
 - ◊ 영유아보육학과 ▲ 조민지 (3) ▲ 이우선 (3) ▲ 손은영 (2) ▲ 공은서 (2)
▲ 최정안 (1) ▲ 이한솔 (1)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임영윤 (3) ▲ 송원석 (3) ▲ 황재민 (2) ▲ 송사현 (2)
▲ 이성연 (1) ▲ 강민주 (1)
 - ◊ 간호학과 ▲ 홍효천 (3) ▲ 김채연 (2) ▲ 송혜원 (2) ▲ 김민주 (1) ▲ 김유경 (1)

“그리스도의 사랑정신이 필요”

제 36 대 하다 총학생회 임원단 워크숍



▲ 레크레이션에 열중하고 있는 총학임원단

제 36 대 하다 총학생회 (회장 남유진) 임원단 워크숍이 3 일 ~ 4 일 남양주시 송 능중앙교회에서 이틀간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과 총학예배 및 연간사업계획 보고와 기도 순서로 진행 되었다. 남유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 임원단 전체가 헌신과 열정으로 학우들을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정신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총학을 함께 이끌어 가자 " 고 강조했다.

20 명의 임원단은 먼저 레크리에이션으로 서로를 향한 친교의 문을 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서먹서먹한 벽이 무너져 갔으며 예배를 통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기도와 다짐을 함께 나눴다. 이어 대외협력부 등 5 개 부서가 수립한 연간사업계획을 토대로 운영방안을 논의하였고 각자의 아이디어도 제시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이 자리에서 임원진들은 학우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은 능동적이면서도 열린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또 임원단이 솔선하여 학우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및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박보미 언론국장은 " 첫 공식모임의 자리였지만 부서별 목적의식이 잘 소통된 힘찬 출발점이 됐다 " 고 말하였다 .

**“성서대 신양훈련이
빡세다는데”
신 · 편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2월 29일, 로고스홀**

2020 학년도 신 · 편입생 학부모 초청간담회가 오는 2월 29 일(토) 오후 3 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된다 .

학부모 초청간담회는 본교 신 · 편입생 학부모들에게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알리고 학교의 교육 내용 , 교육의 방법 ,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의 기대를 전하고 모색해 가는 자리이다 . 물론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 학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성서대가 신양훈련이 빽세다는데 어떤 신양훈련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소문이 나는지 궁금해 한다 . 궁극적으로는 학우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학생 ,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각오를 함께 다지는 자리이다 .

당일 행사는 예배로 시작한다 . 이어 대학 안내 및 교수진 소개 , 환영의 시간이 펼쳐지고 전공별로 나뉘어 학교 투어가 있다 . 투어가 끝나면 학과별로 전공 교수와의 만남의 시간이 진행된다 .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되며 졸업 후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그들이 받게 될 대우는 등은 어느 정도 , 경쟁은 얼마나 가열찬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 우리 대학의 교수들은 「철 없는 1 학년 학우」들이 이 학교 4 년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 으로 몰라보게 성장한다는 점을 야심차게 보여 주고 싶어 한다 .

**2020년 제 1 차 이사회
2020년 예산 180 억 통과**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김창원) 의 2020년 제 1 차 이사회가 20 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사회는 180 억 규모의 2020년도 학교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2019 학년도 법인 및 부설기관의 추경안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과 운용과정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며 이를 승인하였다 .

학교가 수립한 2020 학년도 예산 180 억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목적용 긴축 예산으로 꾸려졌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이밖에 기초교육원의 원어민 Nel Susan Elizabeth 교수의 교원 재임용건도 함께 가결하였다 .

**김성경 (사복) 교수
서울시장상 수상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개발 공로**



▲ 김성경 교수

김성경 (사복) 교수가 지난해 12 월 20 일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에 대한 공로로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다 .

김 교수는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법인에서 서울시 추천이사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과 안내에 열정을 담아 냈다 .

또한 서울시 찾동추진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시정평가 자문단의 평가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공로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학회장들의 소망

2020 학년도를 이끌어 갈 각 학과 학회장들의 소망을 들어 본다. 한결같이 학우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학우와 교수와의 사이에서 교량역을 잘 감당함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의지를 나타냈다.



성서학과 _ 백민석 학회장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길

성서학회 '진심' 학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신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진심을 듣고 실천하는 성서공동체가 학회의 방향입니다. 저희 학회원 모두 상대방의 생각과 진심을 헤아리고 섬기며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솔선수범하는 진심학회가 되어 학과 전체가 거듭나는 축복의 2020년 되길 기원합니다.



사회복지학과 _ 최하은 학회장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도전하겠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21 대 '도담' 학회입니다. '도담'은 '도전을 담다'의 뜻으로 2020년 학우들의 새로운 꿈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도전하고 담아내겠습니다. 소확행을 보장하는 이벤트 및 학과의 즐거움을 전할 사업도 만듭니다. 이를 위해 학우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전체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가 학우와 교수를 연결하는 이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보학과 _ 최규빈 학회장

뿌리와 같은 존재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영보학회 이름은 '하늘'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학회와 학우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우들의 즐겁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돋기 위해 소중한 목소리를 새기고 이를 적절한 방안으로 수용해 발전시켜가는 학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교수님과 학우들 사이에서 뿌리와 같은 존재로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_ 정승원 학회장

마지막까지 학우를 섬기고 돋겠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회는 하늘이 내린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람'입니다. 학우님들은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1년 동안 학과를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학과 전체의 숲을 보는 안목으로 협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제일 마지막까지 학우를 섬기고 돋는 '하람' 학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 갈 것입니다.



간호학회 _ 이진영 학회장

밀알정신을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모아' 학회입니다. '모아'는 마음과 뜻을 모아 학과와 학우들을 섬기는 역할에 최선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밀알정신을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솔선수범하는 학회 되길 소망합니다. 선후배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끌어 주는 귀하고 좋은 분위기의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수님과의 교량역할 및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주어진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것입니다.

베트남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국가 한진호 (기초) 교수 논문 발표와 현지를 보며 ...



▲ 논문 발표 후 참가자들과 함께
(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 한진호 교수)

한진호 (기초) 교수가 신년 (10~12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학회를 다녀왔다. ICT 융합 흐름과 4차 산업혁명 탐구에 힘을 쓴 베트남 연구자들이 꽤 인상적이었다.

가는 곳곳마다 젊은이로 북적거렸다. 역동적인 에너지 분출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경험담을 짧게 옮겼다.

*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ngineering and ICT-Convergence 2020 (ICAEIC-2020) January 10–12, 2020, Ho Chi Minh City University, Ho Chi Minh, Vietnam (Organized by ICT –Advanced Engineering Society, Seoul, Korea (ICT-AES))

ICT 융합 (Convergence)과 4차 산업혁명 주제의 논문 50 여편이 발표되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결과물 등에 관심이 컸다. 베트남의 한 연구자가 수영과 탁구를 치는 그림을 구분하는 인공지능기술을 발표했다. 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그는 종목별 자세를 구분하고 체육교육에 활용한다는 대답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내가 발표한 얼굴인증 시스템 해킹과 연관된 타연구자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밤이 되면 일반 카메라로는 얼굴 인식이 쉽지 않다. 이를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분석한다는 자료다. 결론은 고성능 열화상이면 진전이 가능하다는 연구자의 답변은 강렬했다. 많은 베트남 연구자의 눈빛마다 진지한 의지와 집념이 돋보였다.

학회를 마치고 인근의 벤탄 시장을 둘러보았다. 모든 게 풍성했다. 어릴적 다녔던 동대문 상가와 비슷해보였다. 그 시절 '나이스 (NICE)' 를 샀지만 이곳에선 저렴한 정품 '나이키 (NIKE)' 를 구매했다. 부근으로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었다. 마치 오래 전 서울 지하철 1 호선 공사와 비슷했고 머지않아 2,3 호선으로 확장될 것 같아 보였다.

성업중인 롯데마트도 봤다. 광장 앞 공간은 음악축제로 북적였고 매장 중앙 어린이 놀이터 주위로 장난치는 수많은 아이들. 베트남 국민의 평균 연령 30 세. 호치민시 전체가 이런 분위기 같았다. 어디를 가 봐도 수많은 젊은이와 어린이들로 소란스러운 열기들 ... 동남아시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베트남은 역동적인 에너지 그 자체였다. 우리도 과거에 이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었다.

분명한 건 베트남의 푸른 미래가 그리 멀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 취임

“이웃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



▲ 최선희 (사복) 교수로 부터 취임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는 오동준 관장 (오른쪽).

지난 1월 2일 오동준 관장이 3대 월계종합사회복지관장에 새롭게 취임했다. 오 관장은 취임사에서 월계의 구성원 모두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실천하는 거룩한 소명자라고 말하였다. 서로를 배려하는 원 팀이 되어 주민의 행복을 섬겨나가겠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정성을 더해준 후원자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직원 복지향상과 자아실현에도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업무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오동준 관장은 1993년 월계복지관의 창립 멤버로 입사하여 현재 27년째를 맞고 있다. 월계에서 개발하여 서울 디딤돌 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확장시킨 '아름다운 이웃'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평택대학교와 우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본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해 왔다.

대학원 제 6 회 성경주해세미나 개최 '요한복음 주해와 설교'로 진행



▲ 이민규 교수가 PT 자료를 이용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대학원이 주최한 제 6 회 성경주해세미나가 13 일 '요한복음 주해와 설교' 주제로 천마홀에서 진행되었다.

유상섭 (창신교회 담임) 목사가 '요한복음 14 장의 핵심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할 것인가 ? ' 에서는 주의 거룩함 속에서 죄인의 본성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품어준다고 강조했다 .

이민규 (성서학과) 교수는 '요한복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와 같다며 관련된 여러 시각적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 .

'요한복음과 구약'으로 강의를 이어간 안상희 (Gateway Seminary) 교수는 세례요한의 역할은 소명자로서 서사적 기능의 감당이었다며 이를 현 목회자들도 잘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광 대학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동북권 인근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성경공부의 자리로 거듭나고 있다며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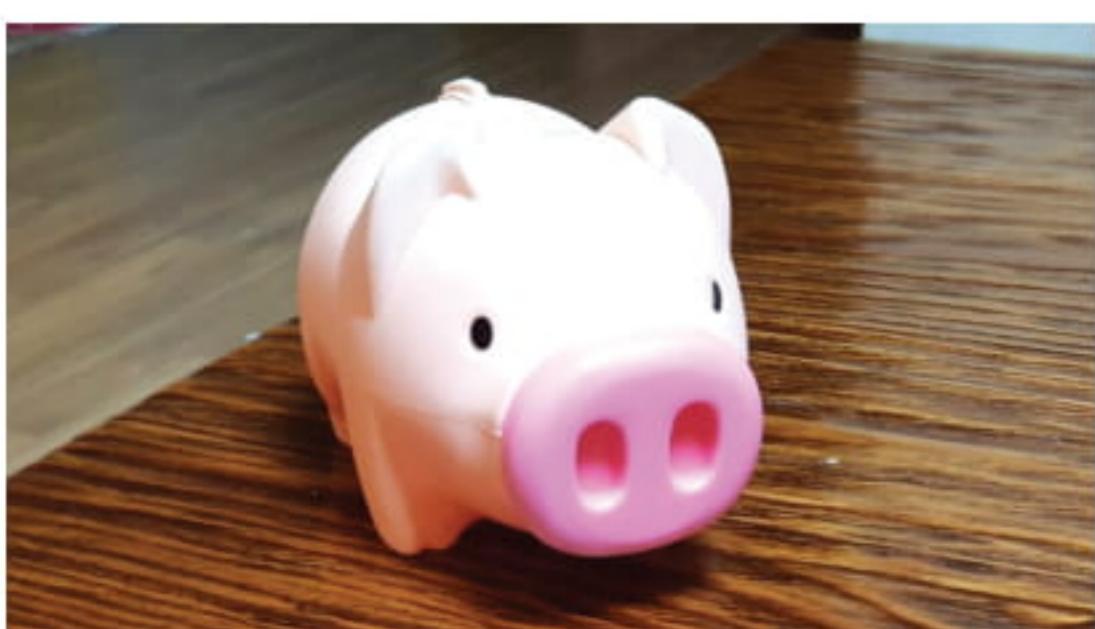
20 년 전 받은 장학금이 큰 힘과 용기 ! ..

김종완 동문 1 백만 원
은혜를 되갚고 싶어 !

신학대학원 김종완 동문이 신대원 재학시절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갚고 싶다며 대외협력실로 발전기금 1 백만 원을 전달해 왔다 . 김 동문은 지난 2001 년 신대원에 입학하였다 . 직장인으로 생업과 학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그에게 학교가 준 장학금이 큰 힘과 용기가 됐다 . 그 덕분에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신대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

김 동문은 신대원 (13 회) 졸업한 게 벌써 15 년 흘렀다 . 소액이지만 지금도 재학시절 받아온 장학금의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 시간이 더 늦기 전에 그 당시 받았던 은혜를 되갚고 싶었다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 되기를 희망하였다 .

돼지저금통의 사랑 굶는 학우들에게 한 끼의 점심이라도 오계순 권사 부부



의정부 한민제일교회 오계순 권사 부부가 점심을 굶는 학우들에게 점심 값에 보태라며 한 해 동안 돼지저금통에 모아온 동전 5 만 1 천원을 학교에 기탁해 주었다 . 오 권사 부부는 금액이 적어 부끄럽지만 나누고 싶어서 마음을 담았으니 잘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

이들 부부는 2 년 전 , 50 만 원을 우리대학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했었다 . 당시 오 권사 부부는 " 이번에 못하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 .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 며 기초생활비에 용돈까지 보태 학교에 현금을 전한 화제의 주인공이다 .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컬럼
양윤식 직원 (사무관리팀)

우한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한 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재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국경을 차단하여 그 쪽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국가적 조치부터 식구끼리도 2M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손 씻는 법, 기침하는 법까지 예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피하고 문을 닫아가는 일 외에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규성 목사님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 되어 있는 우리 교민들을 돋겠다고 전화 하였습니다. 30분 후 그는 "일반인들이 할 일은 없으며 귀교의 고마운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며 답을 해 왔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도 같은 전화를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할 일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감염 여부를 기다리며 애태우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의료 인력을 위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괴질은 보통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한폐렴 문제는 개학이 다가 오자 학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도 대학에 개강연기, 졸업식 취소, 신입생 OT 취소 등 여러 조치를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형편에서 결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유학생의 규모나 입지조건이 다른 우리대학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 교무위원회가 모든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졸업식과 학기 초 FT는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사일정의 예정된 진행은 각자마다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기본 안전수칙은 1. 외출 후 흐르는 물에 세정제로 손과 눈을 닦기 2. 일상 생활에서 최대한 마스크 사용하기 3. 재채기는 입을 가리고 하기 4. 인사는 목례나 눈인사로 5. 과로는 피할 것 6. 의심되는 증상(발열, 호흡 곤란 등)은 병원 및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것 등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모든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어머니에게 완패한 사연

나는 학창시절을 보내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많이 즐기곤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타만의 묘미를 즐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도 우연찮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배우게 됐다. 어머니의 실력은 느렸지만 조금씩 상승하였다. 나와 어머니는 게임 운용 방식을 놓고 대화도 자주 나눌 만큼 「스타크래프트」는 좋은 매개체가 됐다. 어머니와는 가끔 팀 플레이하거나 때론 1:1로 맞불기까지 하였다. 실력은 당연히 내가 우세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최근 어머니와 1:1로 한판 붙었는데 내가 형편없이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다크스웜(게임 속 스킬)을 뿐이며 본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랐다. 예전 내가 가르쳐 주던 어머니와는 완전 딴판. 엄청난 실력 향상이었다. 패배 원인을 알고 싶어 어머니 곁에서 게임 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다.

결론은 게임 끝난 후 리플레이 영상을 저장한다. 몇 번이고 되돌려 보면서 패배 요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고수들의 플레이까지 배우고 따라하는 등 게임 플레이를 착실하게 발전시켜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공부나 혹은 일을 할 때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봤다. 지금보다 더 향상되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집중하기', 두 번째 '피드백', 세 번째 '피드백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력의 자세'라는 결론을 내렸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나는 이 글을 보며 뜨끔했다. 일상생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성장하려면 나아질 부분을 정확히 캐치, 그걸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마음을 다 잡아 성장한 나 자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수 컬럼
최은희 교수(간호학과)



외래교수 컬럼
안정 교수 (현대사회와 스포츠 교육)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3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의 신앙을 돌 아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던 그날의 기억이 어김없이 떠오른다.

임상에서 근무 중일 때 일이다. 유독 까칠한 성격의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 때문에 있었던 나와의 작은 입씨름 후에 툭 던진 한마디가 이랬다. "종교가 불교조"였다.

그런 일을 겪은 후 나도 그 의사는 절대 크리스천이 아닐 거라며 오랫동안 속으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실족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한동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다.

몇 년 전 개인적으로 친했던 타과 학생이 간호학과 학생의 오해가 안타깝다며 나에게 전해준 "우리학과 교수님은 크리스천인데 사랑이 없어요"라는 말이 또 오래전 그때의 기억과 오버랩됐다.

정말 오해일까?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게' 신양인으로서 내 삶의 방향성인 이 슬로건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그래서 늘 복음전도 자로 전문인으로 부족함 없는 학생을 길러내겠다는 지금의 이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완전하신 주님께

그렇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지금의 내 생각이 내일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들도 그러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 것이다. 나의 진짜 모습을 인정한다면...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절대 크리스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의사도 신실한 크리스천일 수 있었다고!

스트레칭

2020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다이어트 성공', '근육량 증가'와 같은 새해 목표들을 증명하듯 스포츠 센터마다 비어있는 기구 찾기가 힘들다. 특히 러닝 머신과 웨이트 머신은 항상 포화상태라 사용을 위해 눈치싸움과 스피드가 필수이다. 그에 비해 스트레칭 구역은 비교적 한산하다. 사람들이 스트레칭보다 유산소성 운동, 저항성 운동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 정도로 짧게 그치곤 한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필수 운동이다. 스트레칭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체 조직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 또 유연성과 근육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신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돋는다. 짧아진 근육을 적절히 자극시켜 정상 길이로 회복케 하고 단백질 흡수를 도와 근육까지 강화시킨다. 우리는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내면적 안정과 평안감을 얻기도 한다.

스트레칭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임하려면 다음 지침을 참고하자. 첫째, 스트레칭 역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스트레칭 임하기 전 체온이 오르도록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가볍게 5~10분 정도 실시한다. 둘째, 가능한 범위 내 운동이어야 한다. 욕심을 부려 과도한 자극을 주면 근육은 놀라서 더욱 움츠러들거나 다치게 될 것이다. 시간 걸리는 것은 당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자. 셋째, 호흡의 유지이다. 호흡은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시켜 스트레칭의 효율성까지 극대화시킨다. 들숨과 날숨을 지속시켜 10~30초 정도로 자세를 유지해 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시하자. 한쪽 손을 반대쪽 귀에 올려놓고 목을 부드럽게 당기며 목의 근육들을 늘인다. 규칙적인 호흡과 동작을 유지한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적용하여 보자.



성서대학교회 담임

교회이야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 처음 찾아와 기도해 주신 분은 친척 아저씨였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독립을 선언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얻은 집이 일본식 집이었습니다. 온돌 대신 '다다미'가 깔린 곳이라서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게 지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그때 친척 아저씨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분은 머리 숙이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분 가시고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 사람 예수쟁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 단어에 붙은 '쟁이'라는 말의 의미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나'하는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가 골목 친구들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말해 주셨던 예수쟁이의 예수를 만난 건, 과외 선생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정권아 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니?" 그 질문에 대답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 마음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안 믿는 분들의 마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타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교회 가는 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 의자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와 교회 마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평안한 느낌, 손가락 끝에서 착하고 달라붙는 찬송가의 종이 질감도 좋았습니다. 부목사 시절 점심때 교회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1부 끝나고 한 그릇, 2부 마치고도 한 그릇, 3부 끝내고서도 다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교회에서 주는 건, 다 맛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서대학교회는 제 교회입니다. 제 교회는 성서대학교회입니다. 외우고 또 외우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대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예수, 찬송, 예배, 식당, 커피, 아이들의 웃음소리, 브니엘 홀, 로고스 홀로 내려가는 계단이 다 우리 교회입니다. 올 한해도 이 땅이 산자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머무는 곳이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8,49 절)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67

강 건너 봄이 오듯 _ 송길자

앞강에 살얼음은 언제나 풀릴거나
짐 실은 배가 저만큼 새벽안개 헤쳐 왔네
연분홍 꽂다발 한아름 안고서
물 건너 우련한 빛을 우련한 빛을
강마을에 내리누나
앞강에 살얼음은 언제나 풀릴거나
짐 실은 배가 저만큼 새벽안개 헤쳐왔네

오늘도 강물 따라 뗏목처럼 흐를거나
새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듯 나부끼네
내 마음 어둔 골에 나의 봄 풀어놓아
화사한 그리움 말없이 그리움 말없이
말없이 흐르는구나
오늘도 강물 따라 뗏목처럼 흐를거나
새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듯 나부끼네
물 흐르듯 나부끼네



<http://blog.daum.net/nyap5060/12328837>

살얼음이 깔린 새벽 강가, 한 여인의 기다림이 우련한 빛으로 물들고 있다. 우련함은 '내 마음 어둔 골'과 만나 말 없는 그리움이 되고, 연분홍 꽂내음과 만나 화사한 그리움이 되고, 뗏목을 만나 유유히 흐르는 그리움이 되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만나 나부끼는 그리움이 된다.

송길자 시인의 사설시조 <소식>은 작곡가 임금수를 만나 사무친 그리움이 담긴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으로 확장되고, 소프라노 조수미를 만나 애절함의 정점을 이루게 된다. 그 정점에 다가가니 떠나가는 님을 애달파하던 대동강가 여인의 안타까운 눈물(서경별곡)과 가슴 졸이며 남편을 기다리던 순이의 애끓음(김동환의 <국경의 밤>)이 들리는 듯하다.

연분홍 우련한 빛이 강마을에 내린다. 살얼음이 깔린 새벽 강가에 내린다. 짜 엉쩌엉 살얼음 풀리는 소리... 강 건너 봄이 새벽안개를 헤치며 저만큼 저어 오고 있다.



▲ 학부모와 교사가 IEP 평가회의를 갖고 있다.

대학
어린이집

2019년 통합 4차 IEP 평가회의

대학어린이집은 지난 13~23 일까지 통합유아 학부모 15 명을 대상으로 통합 4 차 IEP 평가회의를 가졌다. 4 차 평가회의는 2 학기 진행된 IEP를 종합 평가하고 수립된 항목에 대한 의견의 교환 및 향후 가정과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상호 조율해 가는 자리이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기 초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며 지도해 준 교사들에게 감사하였다. 이와 함께 더 나은 성장을 기대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를 통해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학어린이집은 이번 4 차 평가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 및 지원 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시켜 갈 것을 밝혔다. 학부모 의견까지 잘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더 나은 차기를 준비한 시간이 됐다.

[감사반 교사 신은숙]



▲ 취임식 후 오동준 관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 취임식

지난 1 월 2 일 전체 직원과 한국성서대학교 유정선 교목실장, 최선희 협력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오동준 신임 기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1~2 대 관장의 발자취 및 3 대 오동준 관장의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 격려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오동준 관장은 취임사에서 법인의 설립 정신인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One-Team One-Mission 에 의한 조직 운영의 동력 확대와 미션, 비전, 인재상 점검 및 공공과의 차별화에 기반한 공생 전략으로 기관 전체가 행복해지는 복지관 구축 포부를 밝혔다. 오 관장은 1993년 월계에 입사 후 27년째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 시정사업으로 선정된 아름다운이웃 개발의 주역이다.

[복지서비스 1 팀 / 흥유민 사회복지사]



▲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공기놀이에 열중하는 유아들

꿈빛
어린이집

전통놀이 한마당

구정을 이틀 앞둔 지난 22 일 꿈빛어린이집은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전통놀이 한마당은 예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온 여러 가지 전통놀이, 전래동요 배우기, 전통악기 연주하기, 웃어른께 세배하기, 전통부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코너를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돌아보며 체험하고 배우도록 꾸몄다.

전통음악 체험에서는 우리의 흥겨운 가락과 소리를 탐색해보고, 전래동요에 맞춰 한삼 춤을 춰보기도 하였다. 전통놀이는 비석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을 경험했다. 경기방식과 요령을 듣고 참여한 어린이들은 낯설어하다가 곧바로 적응하는 순발력을 보여주었다. 원장님께 세배 드리고 다과류인 강정바를 선물 받고 선미소로 기쁨을 드러냈다. 전통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백합반 통합교사 여미희]



▲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안내 포스터

성서
대학교회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간증_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성서대학교회는 2020년을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로 힘차게 시작하였다. 최정권 담임목사가 '다시 세우는 신앙' 주제의 느헤미야 강해로,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은혜롭게 가졌다. 강해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저녁에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이 집사는 '성경이 인생의 질문에 답한다 (딤후 3:16~17)'라는 주제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진솔한 고백을 전해주었다. 그는 평탄치 않은 여정 속에 자신이 겪은 인생 문제의 정답은 곧 성경에 있었음을 간증하였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회복 경험이 성도들의 반향을 불러왔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찾게 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목사 김문웅]



▲ 수상식을 끝마치고 수상자들과 함께.

내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몸 놀이 _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상계백병원어린이집은 지난 1월 31일 '2019년 한국직장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모전'에 참여해 '내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몸 놀이'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공모전을 위해 많은 직장어린이집들이 교육효과를 향상시켜 줄 개성이 넘치는 보육 프로그램을 출품하며 관심을 불러왔다. 특히 백병원어린이집에서 실행중인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며 즐기는 몸 놀이'에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유아중심·놀이중심이라서 개정된 누리과정과 잘 부합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수상소식에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향해, 보육의 질이 높은 백병원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돼 자긍심은 물론 행복하고 든든하다며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맑은반 교사 이은경]



▲ 유아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체험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정겨운 우리놀이 & 형님이 되어요

노원구육아종합사회복지관은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내부에서 접하기 어려운 놀이와 환경을 고려한 양질의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1월의 주제는 '정겨운 우리놀이 & 형님이 되어요'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들이 고유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안내해 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인지발달, 신체활동 및 사회적 기술 습득 등도 활발히 도모시키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형님이 되어요' 가 나를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전인적 발달까지를 접하도록 이끌어 준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약 및 체험 참여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행정원 설주희]

연탄나눔봉사 참여

지난 14일 만 5세 유아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으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서 진행 중인 '연탄나눔봉사'에 동참하였다.

이 날 봉사는 당고개 인근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이 가가호호를 찾아가 추운 겨울 한파를 녹여줄 연탄을 전달해드리는 노동봉사다. 유아들은 직접 작업복을 입고 준비한 연탄을 한 장씩 손에 들고서 방문하였는데 어르신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맞아주었다.

유아들은 어느 때보다 큰 성취감을 느꼈고 타인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체험해 본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함께 실천할 다양한 활동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반 교사 김수진]

경로당 방문

지난 22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학부모와 영유아들은 수락리버시티 경로당에서 미니콘서트를 펼치고 세배를 드리며 어르신 공경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밝고 사랑스런 표정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맞아주었다. 영유아들은 준비된 노래와 율동을 선보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르신들께 맛있는 '새해 떡'을 전해드렸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모두의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었다. 학부모와 방문은 1,2,3 세대 간 교류와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경로효친의 값진 시간이 됐다.

늘사랑어린이집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해 행복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늘사랑반 교사 한보연]

설맞이 경로당 나들이

지난 22일 총무어린이집은 동국대 근처의 장충경로당으로 지역사회활동을 다녀왔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하늘반 아이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향해 공손하게 세배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를 마친 후 직접 쓴 손 편지도 전했다. 준비해 간 율동과 노래로 공연을 선보였고 작은 손길로 안마까지 해드렸다. 아이들을 맞아 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세배하고 안마까지 해줘 너무 감사하고 흡족하다. 세뱃돈이라도 쟁겨주고 싶은 마음이다" 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하늘반 아이들도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한 것에 뿌듯해 하였고 다음 해에도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새해를 맞아 어른들께 인사드리며 공경의 마음을 실천해 본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교사 강예은]



▲ 연탄나눔봉사를 마친 유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설 명절을 맞은 어르신께 유아들이 공손하게 세배하고 있다.

총무
어린이집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조영자(동문)	10000달러(운영)	류경인.지수	1000달러(운영)
오에스더	6000달러(운영)	김은호(부총장)	1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610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강우정.강진(총장)	528만원(운영)	이종숙	100만원(컴퓨터소프트웨어학)
중앙성서교회(현희철 목사)	200만원(운영)	정해덕(컴퓨터소프트웨어학 교수)	100만원(컴퓨터소프트웨어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0.5구좌 김샛별 민이삭 박진기	서명주 설보경 신예진 오유경	안현미 이민규 이소정 장인순	12구좌 황인돈.김순자
0.7구좌 강민아 김지원	왕혜원 이예림 이윤성 이혜린	정휘진 최은희 한영수	15구좌 이해선
0.9구좌 탁선화	임유림 장예진 장혜란 조서윤	20구좌 김창원 박 선 조윤경	효성교회
1구좌 강현미 권유철 권정인 권 준	차예현 최지나 흥운희	1구좌 윤보배	1구좌 오혜숙
김민겸 김선근 도 만 문홍철	5구좌 송복신 이은혜	3구좌 김선화 박천순	일 반
박상수 박연서 박재윤 박해정	8구좌 임연식	5구좌 이지연	1구좌 김대성 김범설 김범준 박미숙
반해성 방지연 박향목 신대민	10구좌 신치선	20구좌 오동준	소아름 윤수현 윤준영 이성희
신종수 신혜영 용혜수 유선미	100구좌 이례장학	권선제일교회	조목장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이명호	1구좌 이혜진 임동화	1구좌 이상규	2구좌 김종환 이일신 장병길 최국열
이학준 이해윤 인자은 임남연	10구좌 이은혜	성서대학교회	3구좌 김미수
전명자 조은화 최선경 최인호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이가은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20구좌 류동원 박경혜
최혜림 하진우 황희준	1구좌 김선준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이진호	단체 및 기관
1.1구좌 최상아	양승윤 윤명섭 이지민 허윤민	중앙성서교회	1구좌 열매맺는교회 이음기업
2구좌 김순녀 박대우 안소희 이광석	2구좌 김동준 김봉재 안 호	1구좌 곽 해 김정희 이승학 최경자	행복한교회
장선주 채명숙 최인경 홍혜주	3구좌 김덕원	최영숙	2구좌 성복중앙교회 예수꿈사랑교회
2.2구좌 김현아 김혜인	3.3구좌 양희정	2구좌 이수병	월계성서교회
3구좌 강수진 구예은 권은지 김솔예	5구좌 김현동 현우석	5구좌 김종구 중앙성서교회 권사회	3구좌 우리교회
김시내 김지은 김혜선 박세은	10구좌 고미숙 곽규상 김정숙 안정선	10구좌 김윤규.신인자 무 명	5구좌 평안교회(등암) 향기나무
			10구좌 가성교회 대광교회
			오감발달연구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2천5백원 이정은	박순임 박영근 박영자 박윤복	이이름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5천원 강동란 김샛별 민이삭 이아람	박은지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영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예람
강애슬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이지은 이진경 이진리 이진주	구연민 국소영 김기옥 김두환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산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김미나 김미숙 김미향 김민욱
고성호 곽미화 구본길 구본삼	배은휘 배창경 배혜인 배효순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해선	김병렬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구본철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백명희 백연주 백은진 백해송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김순덕 김승용 김연정 김영주
권슬기 권유철 권은지 권정인	백향목 변지윤 서미희 서유미	이희윤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서정민 서지혜 서희영 성순애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김일한 김재원 김정훈 김종재
김가희 김경희 김다솔 김도훈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장두성 장세진 장순호 장윤국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김동현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손주현 손진규 손혜진 손화진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박대우 박민수 박재승 백연옥
김민정 김민음 김보희 김선근	송민규 송성은 송영자 송유지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순화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송만호 송석배 신정섭 신정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지 김유미	신은혜 신종수 신태양 신혜영	정다면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오채엽
김유진 김은석 김은혜 김응환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정연오 정영교 정영용 정인철	왕용분 유보아 유순희 이구영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이기용 이기주 이상복 이상진
김지선 김 진 김진하 김춘덕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용아름 우승연 우종엽 우현아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은별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이종임 이종희 임은희 장재원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성종
남상숙 남성희 노명민 노한나	윤솔이 윤영원 윤에서 윤정숙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정옥순 정주영 조성진 최선옥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윤지준 윤헤자 이광석 이근중	최승진 최아란 최예본 최예슬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하지혜 황선명 황승호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황보혜영
박명우 박문홍 박성준 박수진	이보아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권서영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진재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권오규 김다예 김동원 김우선

기부자 명단